

중국 최대 포장 전시회 ProPak China 2007

세계포장기계협회총연맹(COPAMA)총회 참석

김 영 순 / 한국포장기계협회 상근 부회장

중국에서 가장 큰 포장 전시회로 금년 13회째를 맞아 개막된 ProPak China 2007 전시회에 한국관이 한국포장기계협회(회장 최상식)와 KOTRA(대표이사 홍기화)의 공동주관으로 추진되어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3일간 중국 상해국제박람센터(SNIEC)에서 개막되었다.

이번 전시회의 전체 규모로는 전시면적 24,500㎡ 와 23개국 501개 회사의 참가로 2006년 전시회 보다 다소 규모가 증가하였고 많은 해외바이어가 전시회를 방문하여 총 바이어 13,801명(전년대비 6% 증가)중 해외 바이어가 3,603명으로 26%에 이르렀다.

이 전시회는 2001년도 전시회부터 매년 한국포장기계협회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국가관을 형성하여 참가해 온 전시회로 금년 들어 7번째로 참가하는 한국인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전시회로 일본과 독일을 비롯한 외국사가 국가관 규모로 참가하는 정평 있는 중국 내의 국제 포장전시회이다.

금년 한국관에는 (주)진성테크템을 비롯하여 을성정공, (주)보성인더스트리, (주)피엔티, (주)이지미크, (주)스카이소프트젤, (주)한국크리에

타, (주)리팩, (주)DKM, (주)민속물산, (주)자비스, (주)인터맥마킹, (주)세진테크, (주)아우첼그린후드, KOTRA, 한국포장기계협회 등 16개 회사가 참가하여 총 207㎡의 부스 운영으로 총 상담건수 767건(1,870만 불)과 계약 660만불 및 196건의 대리점 상담을 기록 하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독일, 영국,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캐나다, 덴마크, 홍콩, 대만, 말레시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싱가포르, 스위스, 태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등 총 23개국이 참가해 포장의 모든 것, 즉 기술과 품질 그리고 신뢰성 높은 최신 기계와 제품을 선보임으로 마치 독일 뒤셀도르프의 Inter Pack을 방불케 할만큼 국제적이고 수준 높은 전시회로 인정받았다.

특히 한국 16사(207㎡), 독일 19사(510㎡), 이탈리아 19사(120㎡), 일본 12사(258㎡), 미국 16사(252㎡) 대만 27사(738㎡), 영국 8사(129㎡) 등이 국가관으로 참가 하여 국제적인 포장 전시회의 규모로 손색이 없었으며 국가관 참가국 중 독일이 최대 규모인 510㎡ 그리고 그 뒤를 일본이 258㎡의 대규모로 국가관을 구성함으로 외



▲ ProPak China 2007에 참가한 한국포장기계협회 한국관

특히 포장기계의 고속 정밀 신뢰성의 요구가 크게 증가할 전망으로 향후 중국의 포장기술이 특히 컴퓨터 라이징화, 원격 자동제어기술, 쉘링 기술 등의 자동화 기술의 미흡으로 향후 몇 년간은 외국 포장기계의 수입 선호가 계속 늘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발 빠른 포장기계생산의 급속한 기술력 향상은 독일과 일본은 물론 한국의 포장기계의 가격

과 기술경쟁력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그 격차가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실감 할 수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대만이 27사 738㎡로 대규모 참가하여 크게 눈에 띄었다. 이들 국가들은 2008년도에도 금년보다 약 10% 정도 증가한 국가관 전시면적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시 주최자는 전하고 있다.

이처럼 포장기계의 선두주자인 독일, 미국, 일본 등의 대규모 전시 참가는 거대한 중국시장의 시장 점유를 높이기 위한 경쟁으로 풀이된다.

KOTRA 상해 무역관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포장 산업은 고속성장을 유지해 공업 총 생산량은 20% 증가 생산 총액은 3,000억위엔을 넘었으며 업계의 이익 성장률은 44.6%에 이르렀고 판매수입 성장률도 21.4%에 달했으며 2006년도 중국 내의 포장기계 생산량은 약 70만대,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약 93만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12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에는 중국기업의 기술향상의 한계로 인하여 수입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ProPak China 2007는 관람객 역시 국제 전시회답게 30여 개국으로부터 13,801명이 방문 상담했으며 이중 외국바이어가 26%인 3,603명(한국인 방문객은 약 200명)을 기록 했다.

이번 전시기간 중 눈길을 끈 회사로는 외국관 내 일본의 중국 현지 생산업체인 상해 ISHIDA 사, 상해 TOPAK, ANRITSU 등의 각종 포장기계는 방문객의 시선을 집중하기에 충분하였고, 한국관에는 (주)진성테크템의 카토닝머신, (주)보성인더스트리의 전사기계, (주)한국크리에타의 튜브 충전기와 음성정공의 삼면포장기, 진공포장기와 각종 밴드실러 및 (주)자비스의 X-RAY 이물질검출기 등이 관심의 대상 품목이었다.

중국관에서는 ZHONGYA사, YUEDONG MACHINERY의 파우치 충전기, 컵 실러 및 병 충전기 등의 품질이 매우 향상되어 바이어의 시

선을 끌고 있었으며 중국의 각종 기계들의 성능과 품질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면서 한국산 기계들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거대한 중국시장의 진출은 몇 년 이내로 끝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느끼기도 하였다. 한편 KOTRA와 한국포장기계협회의 홍보부스를 통하여 내년 5월 일산 KINTEX에서 개최되는 KOREA PACK 2008의 홍보를 실시하여 중국인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정우기계가 자사 카탈로그 전시를 통하여 자체기계의 상담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KOTRA가 발굴한 200여명의 바이어를 직접 전시장으로 초청하여 해당 참가사 부스에 안내하여 소개 하고 상담케 함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활발한 상담을 벌였으며 이로 인해 큰 성과를 올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특히 이번 ProPak China 2007 전시회기간 중 두 번째 날인 7월 11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세

계포장기계협회 총연맹인 COPAMAC 총회가 별도 마련된 전시장 내 컨퍼런스 룸에서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러시아, 스페인, 독일 등 8개국 대표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본인이 한국의 대표로 참석해 한국의 경제현황과 2006년도 포장기계 수출입 현황을 설명하였으며 각국의 대표 석자들도 자국의 포장기계 생산과 수출입에 관련된 현황을 보고하고 상호 기술교류 및 정보 교환을 지속적으로 갖기로 하고 폐회하였다. 그리고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KOTRA 본사 전시팀의 사전 친절한 안내와 설명회, 현지 KOTRA 상해 무역관 본부장의 세심한 배려와 담당 부장의 열성적인 지원과 산뜻한 한국관의 장치로 한국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였으며 본 전시회의 참가 실적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참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내 ProPak China의 한국 AGENCY인 IPR 직원의 현지 출장은 주최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한 몫을 하였

으며 이로 인해 한국관 참가사 모두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ProPak China는 매년 개최되는 전시회로 2008년도에는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같은 장소인 SNIEC에서 개최되며 한국포장기계협회는 한국관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금년보다 늘어난 250㎡의 면적을 주최자 측에 요구하고 귀국하였다. ☐



▲ ProPak China 2007에 참가한 한국포장기계협회 한국관 참가자